

연민에서 박애까지

기사문에 반영된 한국 사회 기부 행위에 대한 의미거리 측정과
시민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노법래(부경대학교)

발표 순서

- 서론
- 분석 자료 / 분석 방법
- 측정 개념의 구성
- 분석 결과
- 결론

서론

연구 개요와 연구 전략

-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약 20년 간 한국 사회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관찰하는 것.
-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기부와 관련해 생산된 기사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함.
-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민-박애의 의미의 축을 활용하고자 함. 전자는 기부와 관련해 한정적/임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보다 보편적/체계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민-박애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탐색적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하위 개념과 기사문 내용 사이의 개념거리(CMD)를 측정하여 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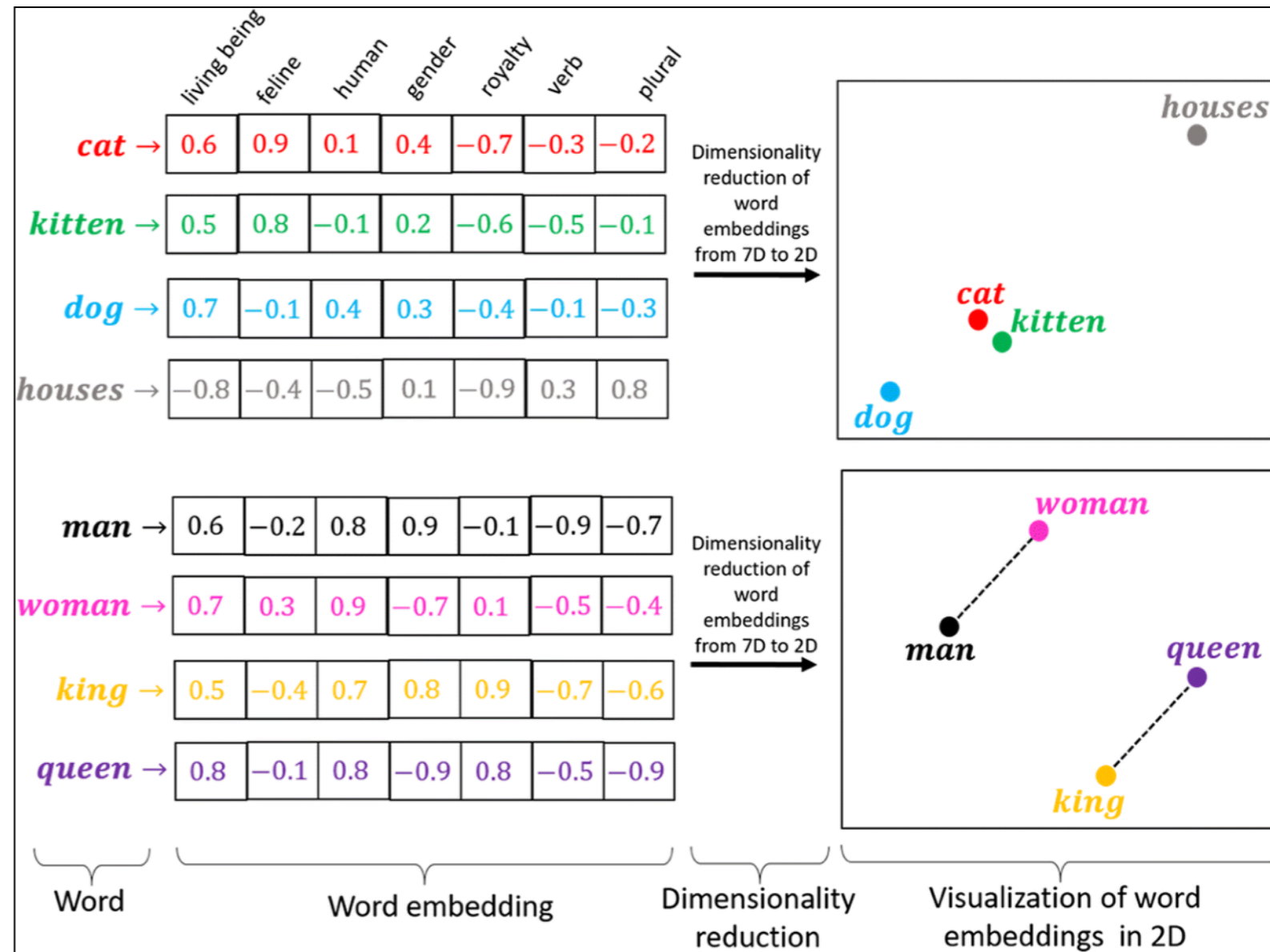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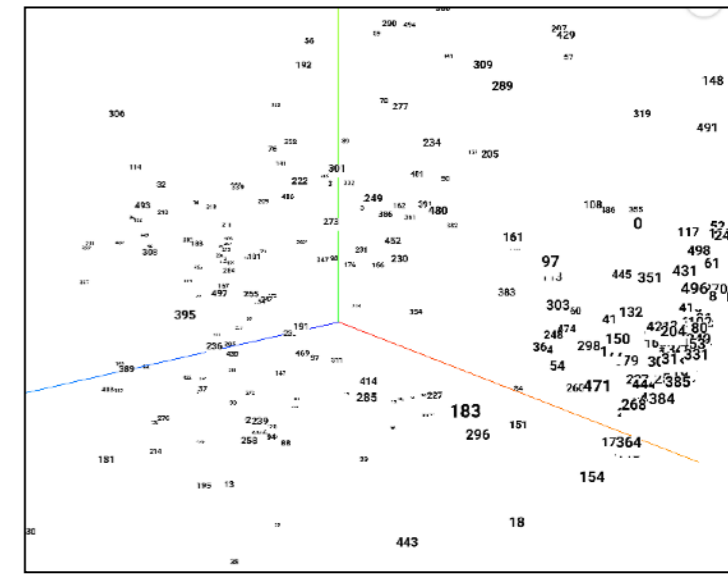
분석 데이터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를 검색어로 웹에서 추출 가능한 기사문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최초로 수집된 자료는 약 17만 건이었음.
- 중복 자료, 텍스트의 양이 작은 단문(글자수 200자 미만), 정식 언론사를 통해 공표되지 않은 기사, 분석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사 삭제 과정을 거쳐 최종 82,632 건이 최종 활용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기사문 본문임. 따라서 연구 목적상 불필요한 요소(하이퍼링크, 언론사 정보 등)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음.

분석 방법

Word V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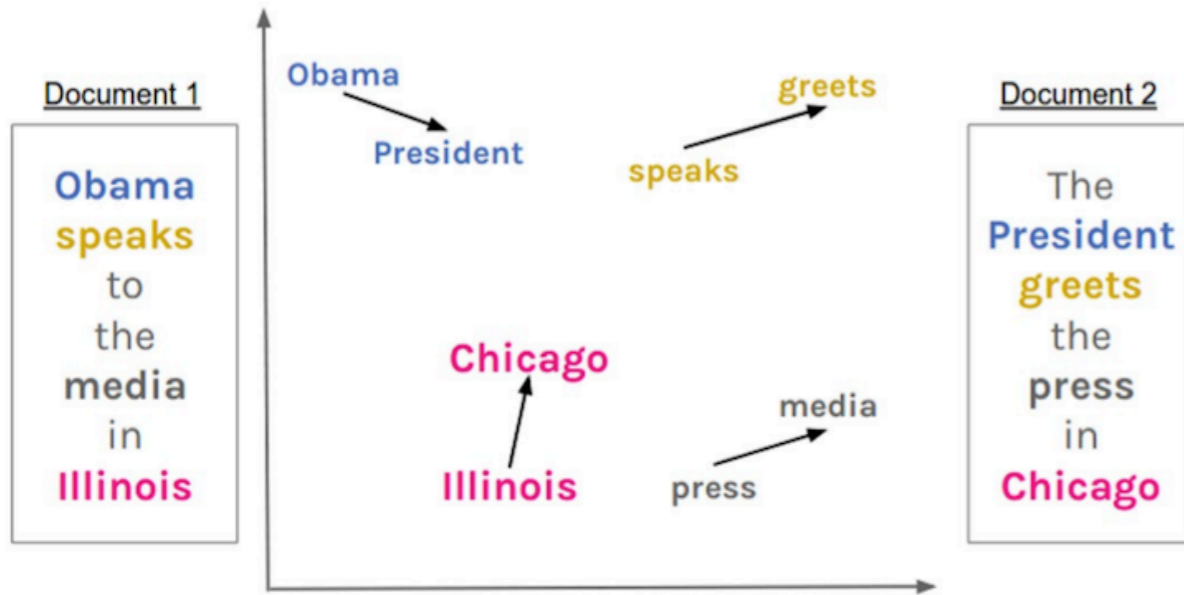
- 본 분석에서는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추출한 자료와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검색어(불평등, 사회보장, 자살, 양극화 등)어로 수집된 10만 건의 기사문을 활용하여 단어 벡터를 생성함.
- 각 단어는 300 차원의 공간에서 고유한 좌표값을 지님.
- 이를 바탕으로 단어 간 거리를(e.g. cosine distance)를 구하거나 multidimensional scaling(MDS)와 같은 차원축약 방식을 통해 시각화 등을 수행.
- 최종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0만 단어에 대한 300개의 좌표값을 가지고 있음.



<https://medium.com/@hari4om/word-embedding-d816f643140>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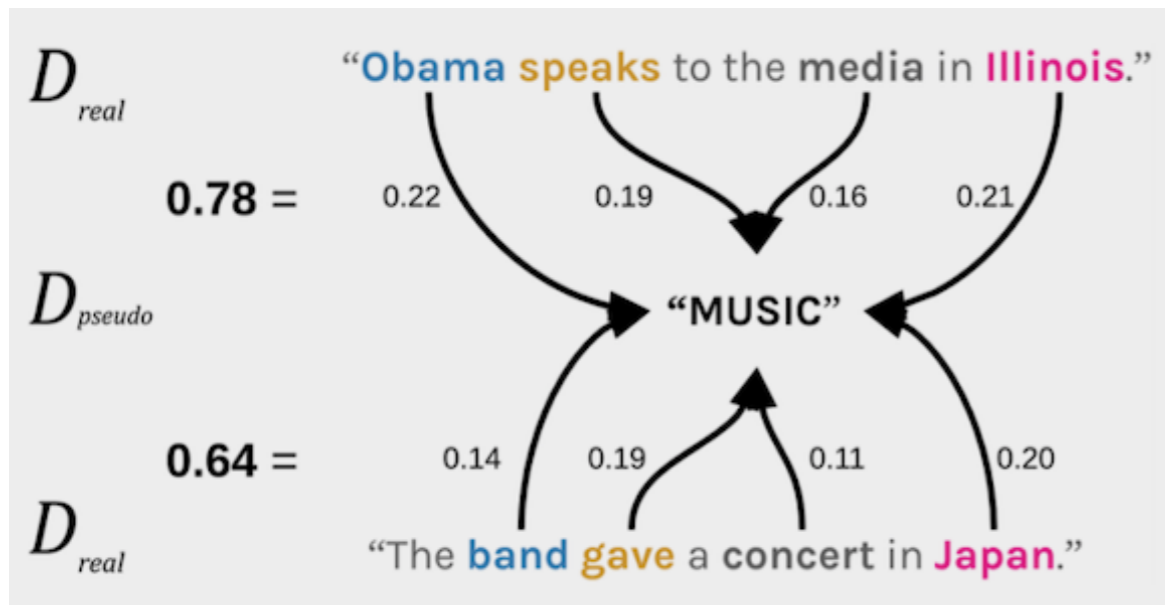
의미거리측정 측정



$$T_{ij} = \begin{cases} d_i & \text{if } \operatorname{argmin}_j c(i, j) \\ 0 & \text{otherwise,} \end{cases}$$

$$T'_{ji} = \begin{cases} d'_j & \text{if } \operatorname{argmin}_i c(j, i) \\ 0 & \text{otherwise.} \end{cases}$$

$$\text{RWMD}_{ij} = \max \left(\min_{T \geq 0} \sum_{i,j=1}^n T_{ij} c[i, j], \min_{T' \geq 0} \sum_{j,i=1}^n T'_{ji} c[i, j] \right).$$



$$\text{CMD}_D = \left(\frac{\text{RWMD}_D - \overline{\text{RWMD}}}{\sqrt{\frac{\sum_{D=1}^n \text{RWMD} - \overline{\text{RWMD}}}{n-1}}} \right) \times -1.$$

$$\sum_{j=1}^n T_{ij} = d_i, \quad \forall i \in \{1, \dots, n\}$$

$$\sum_{i=1}^n T_{ij} = d'_j, \quad \forall j \in \{1, \dots, n\}.$$

- Concept Mover's Distance(CMD). (Stolz & Taylor, 2019)

분석 방법

의미거리측정 측정(코사인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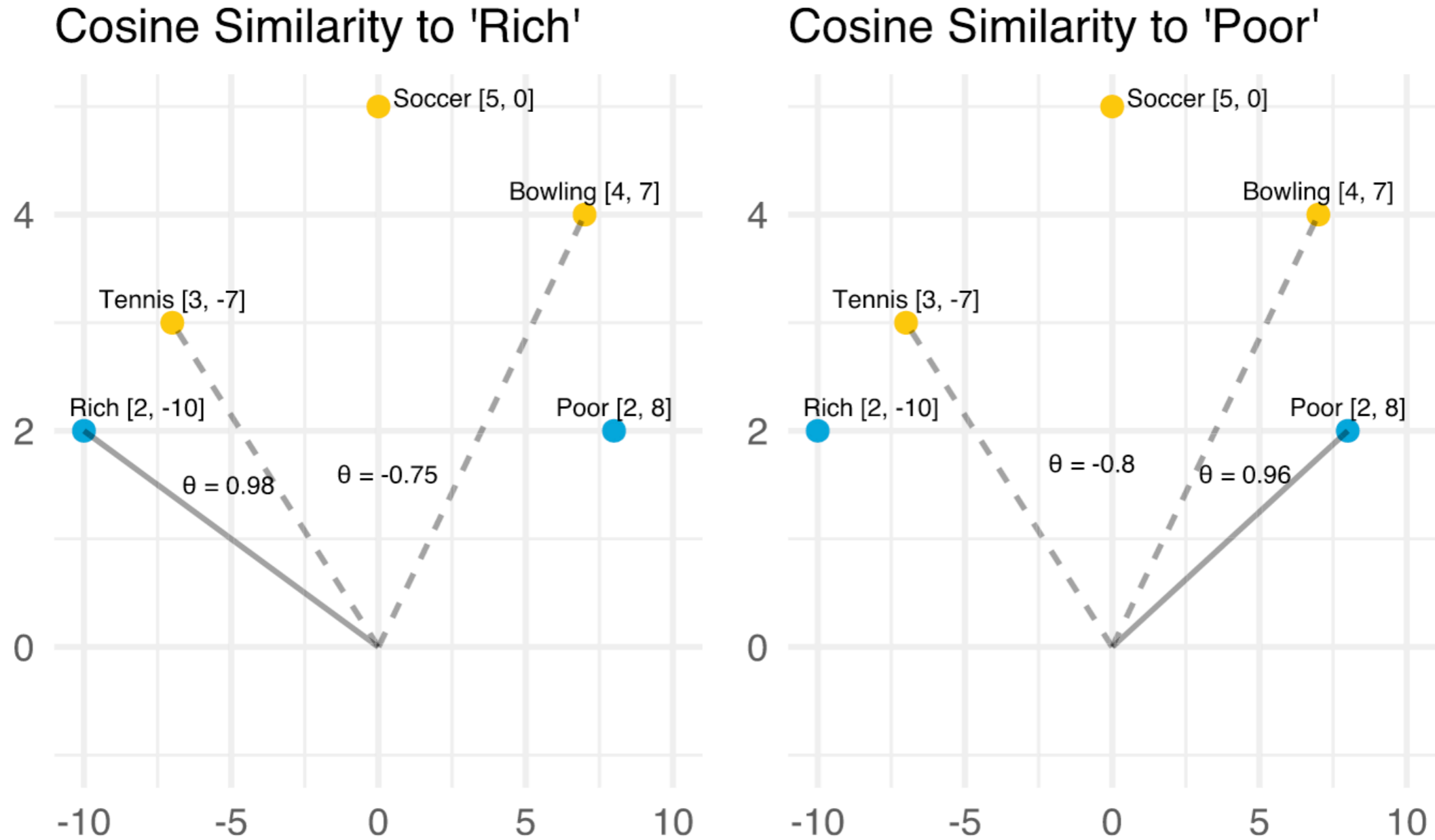


Fig. 2 Example of cosine similarities between word vectors. These are hypothetical two-dimensional word vectors

Taylor & Stoltz(2020)

측정 개념의 구성

연민 commiseratio과 박애 benevolentia

- 연민

- “연민(commiseratio)이란 자신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난 해악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스피노자, <에티카>)
-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감이 연민의 이면에 있는 감정임. 따라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그 감정이 상대가 자신보다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점에서 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음(강신주, 2013).



<https://cdn.langeek.co/photo/23509/original/>

- 박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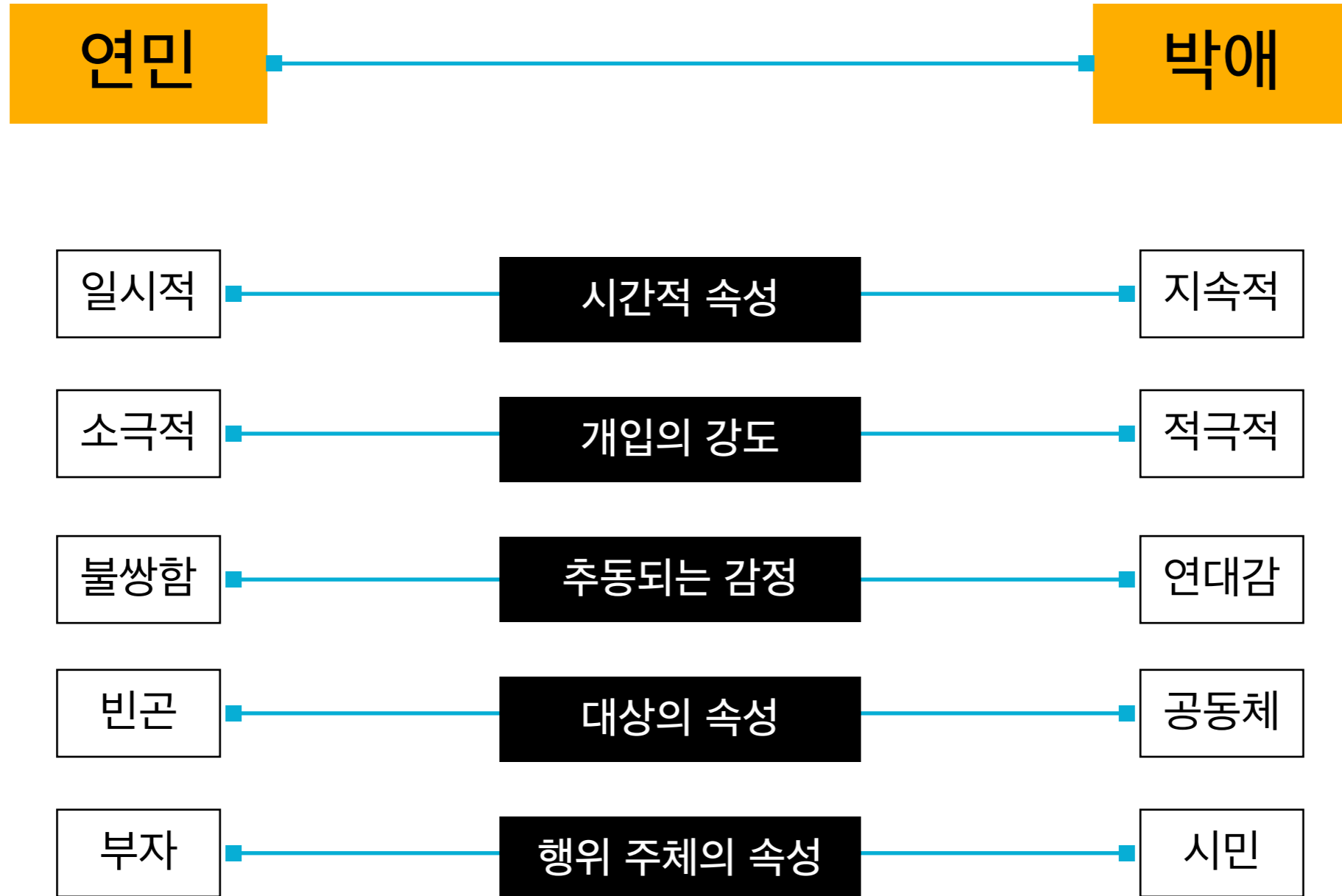
- 박애(benevolentia)란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이다.(스피노자, <에티카>)
- 박애에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은 자신과 유사한 어떤 대상이 어떤 정서에 자극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와 유사한 정서에 자극된다는 것임. <레 미제라블>에서 장 발장이 코제트를 보며 느낀 박애의 감정이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강신주, 2013).



<https://voegelinview.com/benevolence-beneficence-and-beneficialness/>

측정 개념의 구성

연민과 박애 개념의 구성 차원



분석 결과 차원별 측정 결과(시간): 일시적 - 지속적

시기	제목	S _{일시적}	시기	제목	S _{지속적}
2009_1	여신금융협회, 저소득층 위한 급여기부	4.554	2010_1	샘표식품, 한국여성수리과학회 1억원 기부금 약정	5.486
2005_2	구로구, 장애인 보장구 무료 대여	4.398	2003_1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위해선 기업 50% "세제지원 필요"	4.447
2004_1	일자리 창출 통한 빈곤퇴치 정책 펼쳐야	4.104	2011_1	경남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나서	4.368
2006_1	사회적 일자리 6000명으로 확대	3.959	2008_2	[함께가는 사회 상생경영-amco] 中企 자립능력 높이기 적극 도와	4.345
2001_2	[與 예비주자 후원회정치/선관위 입장]" 단속못해"	3.921	2007_2	기업 기부문화 바뀐다	4.164
2009_1	신용회복위 소액금융지원사업	3.870	2006_1	인터파크, 작은도서관 만들기 연중 캠페인	4.007
2009_2	"사회적 기업, 기업에 준조세로 비칠 수도"	3.865	2016_2	교통안전공단, 정보 소외계층에 PC 기부 및 정보화 교육	3.987
2009_1	동국대,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	3.856	2010_2	티켓몬스터, '소셜 기부(So speCial Give)' 시작	3.973
2017_2	한돈협회, 취약층 돼지고기 기부	3.850	2006_1	"기업들, 기부-사회공헌 전략적 연계"	3.925
2003_1	[일반] 기업사회공헌, CEO관심에 달려-전경련	3.837	2009_1	[원주]'천사 WIN-WIN 운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878

- 시간의 차원에서 볼 때 “일시적” 과 높은 유사성을 지니는 기사는 비교적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일회성의 기부 행위나 한시적인 이벤트성 내용이 포함됨. “지속적”과 높은 유사성을 지니는 기사는 주로 장기간에 걸친 기부행위나 계획성/체계성이 높은 사업이 다수 포착됨.

분석 결과 차원별 측정 결과(태도): 소극적 - 적극적

시기	제목	S소극적	시기	제목	S적극적
2003_2	[지금 여론은] 기여입학제 반대 59.8%	4.786	2011_2	경제계 '교육기부 운동' 적극 나서	5.185
2000_2	[경제스코프] 기업부담 높이는 준조세관행 바뀌어야	4.209	2010_1	샘표식품,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 1억원 기부금 약정	5.081
2003_1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위해선 기업 50% "세제지원 필요"	4.123	2009_1	일자리 창출과 나눔경영 실천하겠습니다.	4.709
2016_2	[서울경제신문 대기업 긴급 설문] "기부금 내더라도 지금같은 방식은 안돼"	4.005	2008_1	전경련 "신뢰회복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	4.599
2011_2	국민 47.1%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찬성"	3.966	2001_1	전경련,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4.381
2003_1	[일반] 기업사회공헌, CEO관심에 달려-전경련	3.960	2006_1	"기업들, 기부-사회공헌 전략적 연계"	4.380
2007_2	우리사회의 청렴한 지도층은 10명 중 3명도 안 돼	3.846	2006_1	"기업 사회공헌 활동 국민 평가 낮아"	4.333
2008_2	제약협 "연세의료원 기부금 수수금지선언 환영"	3.822	2009_2	"사회적기업 지원은 반시장 개념 아니다"	4.250
2010_1	기부확산 위해 세제 지원 늘려야..58%	3.807	2009_2	부산, 프로보노협의회 전국 최초 출범	4.242
2018_1	산업부, 대기업에 또 '산업혁신운동 기부금' 요구	3.779	2009_2	곽승준 "기업 약자 배려, 몇백억 광고보다 효과적"	4.239

- “소극적”과 높은 유사성을 지니는 기사문은 주로 규제에 대한 철폐나 기부 유도와 관련한 조세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음. “적극적”의 경우는 기업의 사회공헌 움직임이나 선언에 관한 것이 다수를 이룸.

분석 결과 차원별 측정 결과(감정): 불쌍함 - 유대감

시기	제목	S불쌍함	시기	제목	S유대감
2006_1	[천자칼럼] 평판	4.548	2007_2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식	4.128
2009_1	기부보다 더 값진 자원봉사	4.452	2006_2	한국토지공사-입주민에 도서관등 무상기부	4.012
2008_2	[살며 사랑하며—김정경] 문근영과 스리랑카 소년	4.385	2018_1	이노비즈협회, 2018 희망나눔 프로젝트	3.917
2009_2	[매경춘추] 나눔을 배우다	4.321	2018_2	NH농협카드, 농촌사랑운동 후원 공익기금 5억원 기부	3.841
2004_1	"봉사와 나눔의 바이러스가 퍼졌으면..."	4.203	2007_2	2015년까지 매년 100억 출연 공익사업[사회공헌기업/GS칼텍스]	3.828
2015_1	매출은 '사상최대' 기부는 '찜뚱'	4.142	2008_2	KGB택배, 사회공헌사업 지원 적극 나서	3.770
2013_1	폐지 할머니가 기부한 '세상 가장 따뜻한 10만원'	4.119	2015_1	용인시,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 업무협약	3.729
2013_1	[김상희 풍경소리] 나눔과 기부는 곧 복을 쌓는 일	3.999	2018_1	이노비즈협회, 2018 희망나눔 프로젝트	3.705
2017_2	첫 독자 원고료 5000원, 기부에 썼습니다	3.972	2005_1	LG전자 `공헌 현장` 선포 기부·봉사 등 확대키로	3.704
2008_1	작은 나눔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다	3.958	2009_1	[원주] `천사 WIN-WIN 운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696

- “불쌍함”의 경우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노력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룸. “유대감”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부 실천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분석 결과 차원별 측정 결과(대상): 빈곤 - 공동체

시기	제목	S빈곤	시기	제목	S공동체
2005_1	빈곤학생 초청 `갓스펠` 공연 제공	6.983	2002_1	[표] KDI.매경 교육개혁안 비교	4.242
2009_1	여신금융협회, 저소득층 위한 급여기부	4.988	2017_1	광양 송보 7차 주민 재능기부 작은 도서관 운영	4.194
2006_1	<표> 2005년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건수 상위20위	4.801	2009_2	지식과 학습의 잔치 속으로	3.916
2008_2	<표>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 및 재원	4.722	2000_1	[社告]'나눔의 경제공동체' 본사-삼성경제研 주최 심포지엄	3.912
2009_2	자선 패션쇼 연 패션 디자이너 이광희씨	4.612	2007_2	기부문화 '범시민 운동' 전개	3.850
2009_2	아프리카에 희망을'	4.582	2015_2	[대전·대덕] KAIST-가나안농군학교, 교육 기부 협약 체결	3.843
2009_2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하여'	4.335	2015_1	용인시,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 업무협약	3.800
2018_1	신일산업, 에너지 빈곤층에 1천500만원 기부	4.296	2007_2	현대차 문화예술 브랜드 'H-art', 소외된 이웃들과 문화를 나눔	3.742
2018_1	광주신세계, 저소득층 아동에 1000만원 기부	4.257	2012_1	[부산·경남]부산 산복도로 폐·공가의 새로운 변신	3.722
2007_2	빈곤 아동들을 위해 기부합시다	4.136	2018_2	NH농협카드, 농촌사랑운동 후원 공익기금 5억원 기부	3.718

- “빈곤”의 경우 빈곤 집단을 특정하거나 해외원조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공동체”의 경우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거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이 강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

분석 결과 차원별 측정 결과(주체): 부자 - 시민

시기	제목	S부자	시기	제목	S시민
2014_2	버핏, 2조9000억원 '통큰 기부'	5.370	2012_1	1만 세무사 세금관련 '재능기부' 나섰다	4.494
2009_1	빌 게이츠, 호주 대학에 170억원 기부	5.201	2015_1	"6분 걷고 기부도 하고"...28일 광화문 광장	4.395
2005_2	한림대 기부금 9년간 1,300억	4.792	2010_2	신연희 강남구청장, '희망 동전' 전달	4.121
2008_2	中금융위기가 부호 순위 바뀌	4.665	2009_2	동병상련' 쪽방 주민 · 노숙인도 기부	4.119
2006_1	이건희 삼성회장 부자 장학재단에 주식기부	4.474	2016_1	부산 건강기부재단 등장	4.073
2005_2	"젊은 갑부가 자선 기부 가장 야박"	4.357	2004_2	재가불자운동 펼칠 '우리함께회관' 개관	3.975
2006_1	워렌 버핏, "재산 37조원 기부하겠다"	4.318	2018_1	재능기부로 빛과 소금역할' 울산 기독교문화연대 출범	3.968
2011_2	부의 차이'는 컸으나 '기부의 차이'는 작았다	4.291	2018_1	재능기부로 빛과 소금역할' 울산 기독교문화연대 출범	3.968
2017_2	빌게이츠,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또 5조 원 기부	4.280	2010_1	기부나눔·선진시민의식, 광고로 만들 대학생들~	3.949
2013_2	그룹 틴탑, 쌀 1.93톤 서울 강남구에 기부	4.117	2008_2	도교육청-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1계좌갯기 운동 협약	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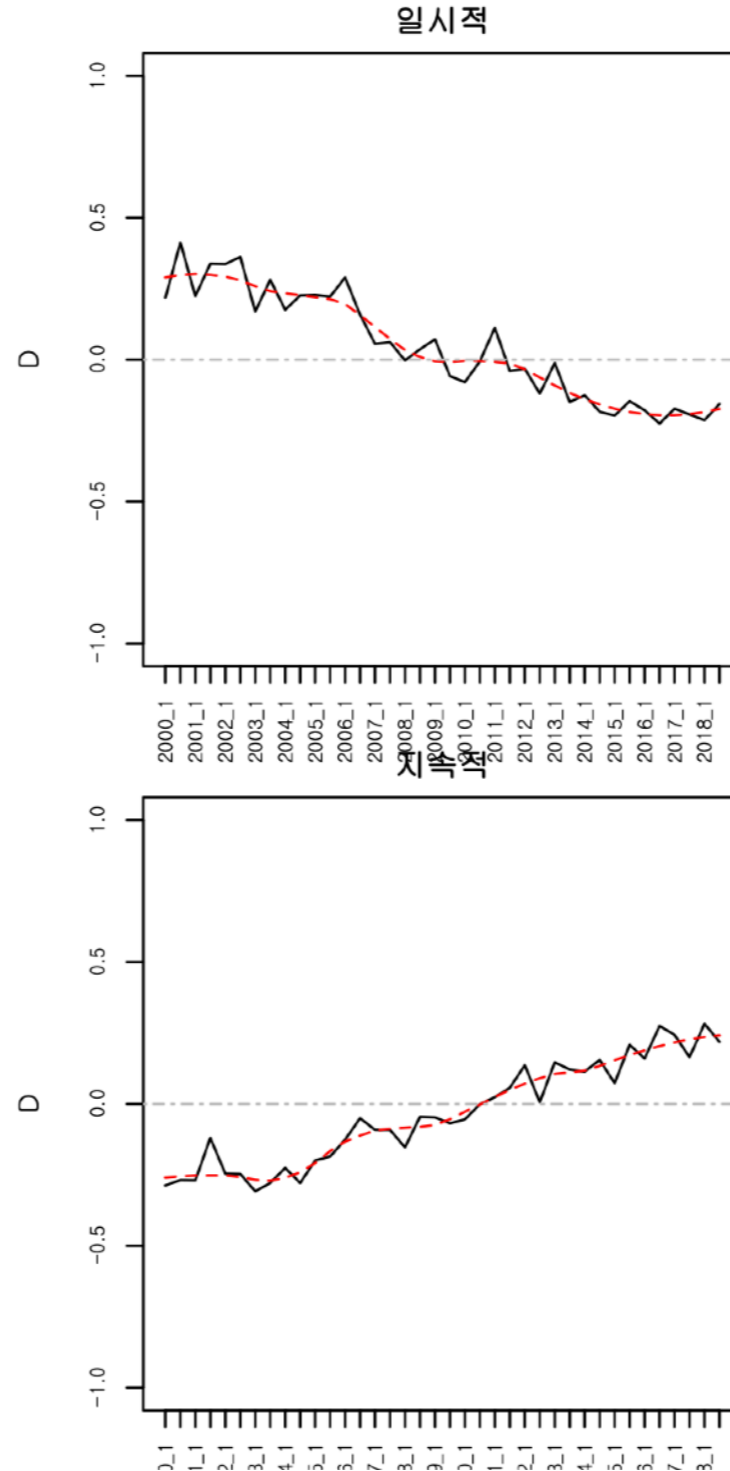
- “부자”의 경우 국내외 거부들이나 대형 재단의 기부 실천에 대한 내용이 다수임. “시민”의 경우 다양한 시민들의 기부 활동이 소개되고 있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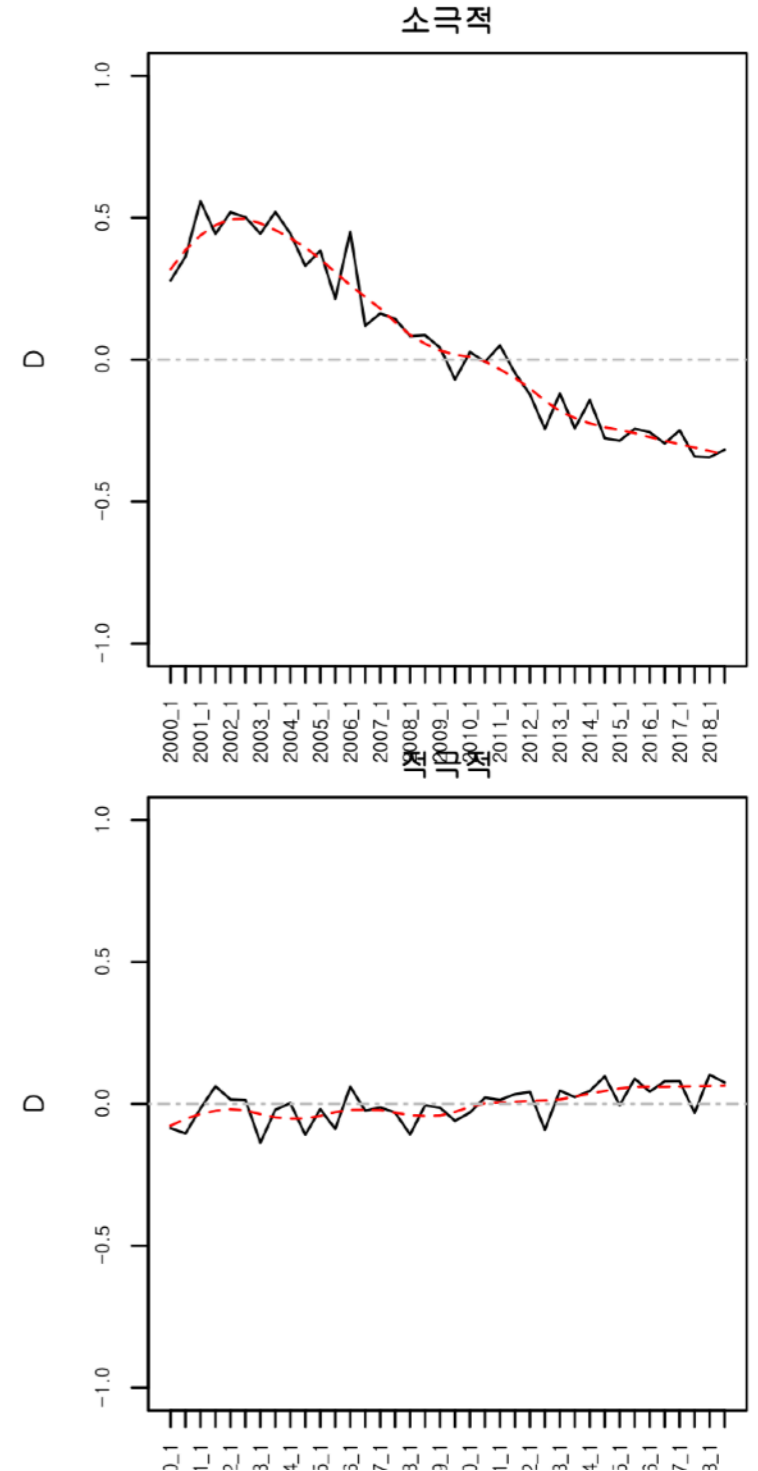
차원별 추이

- “일시적”, “소극적” 성격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남. 반면 “지속적” 성격의 내용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적극적” 성격의 기사문은 특별한 변동 없이 조사 기간 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0을 중심으로 관측값이 분포하는 것은 해당 성격을 반영하는 텍스트가 적을 수 있음을 함의.

시간적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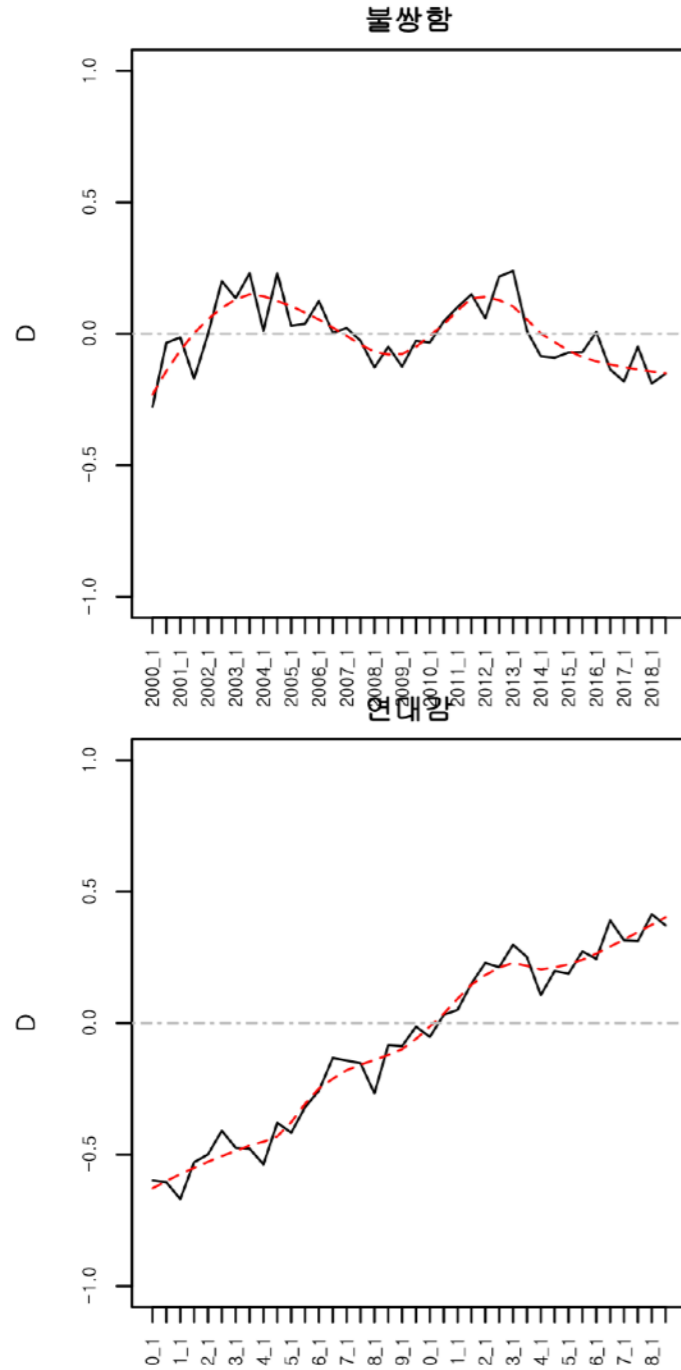


개입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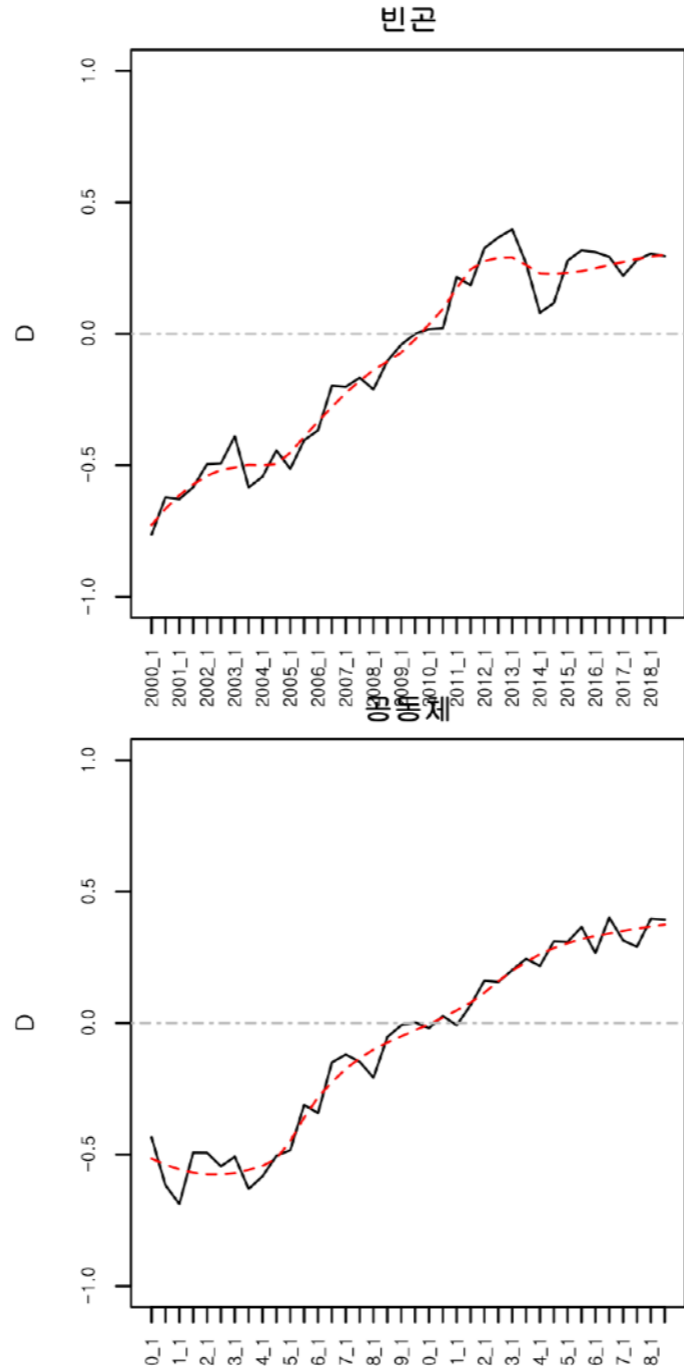


분석 결과 차원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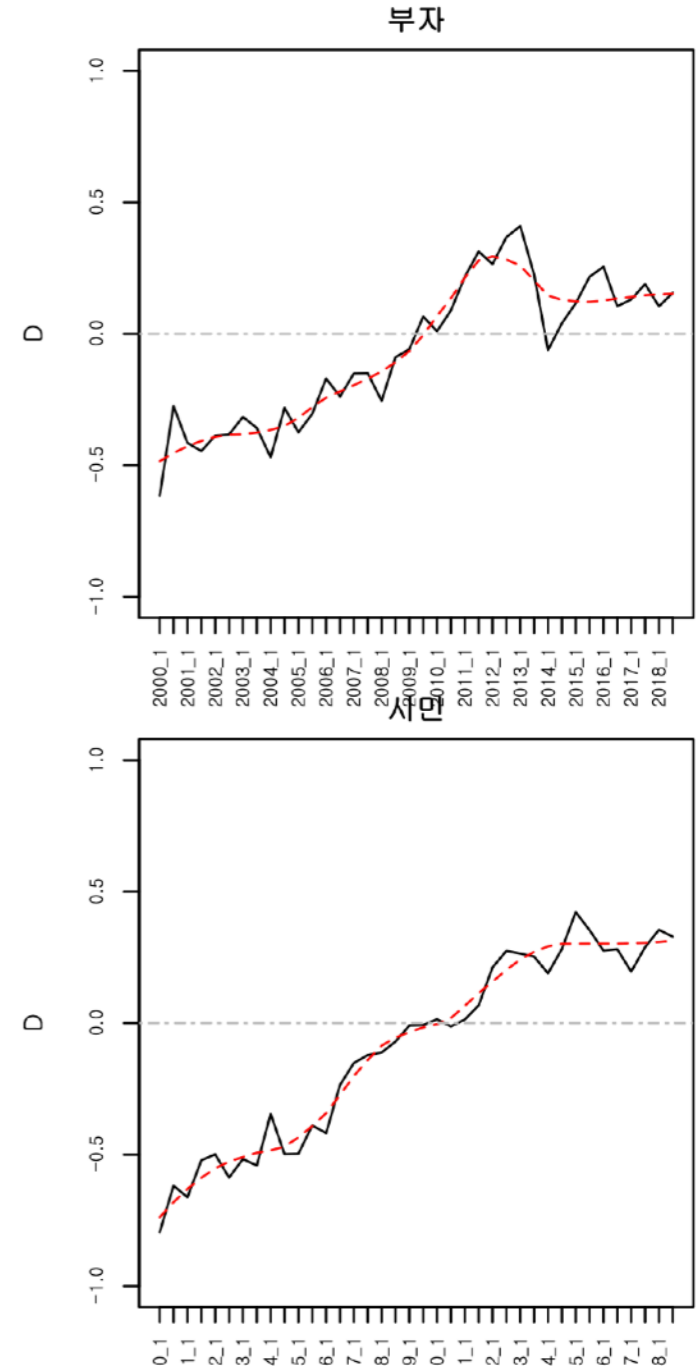
추동되는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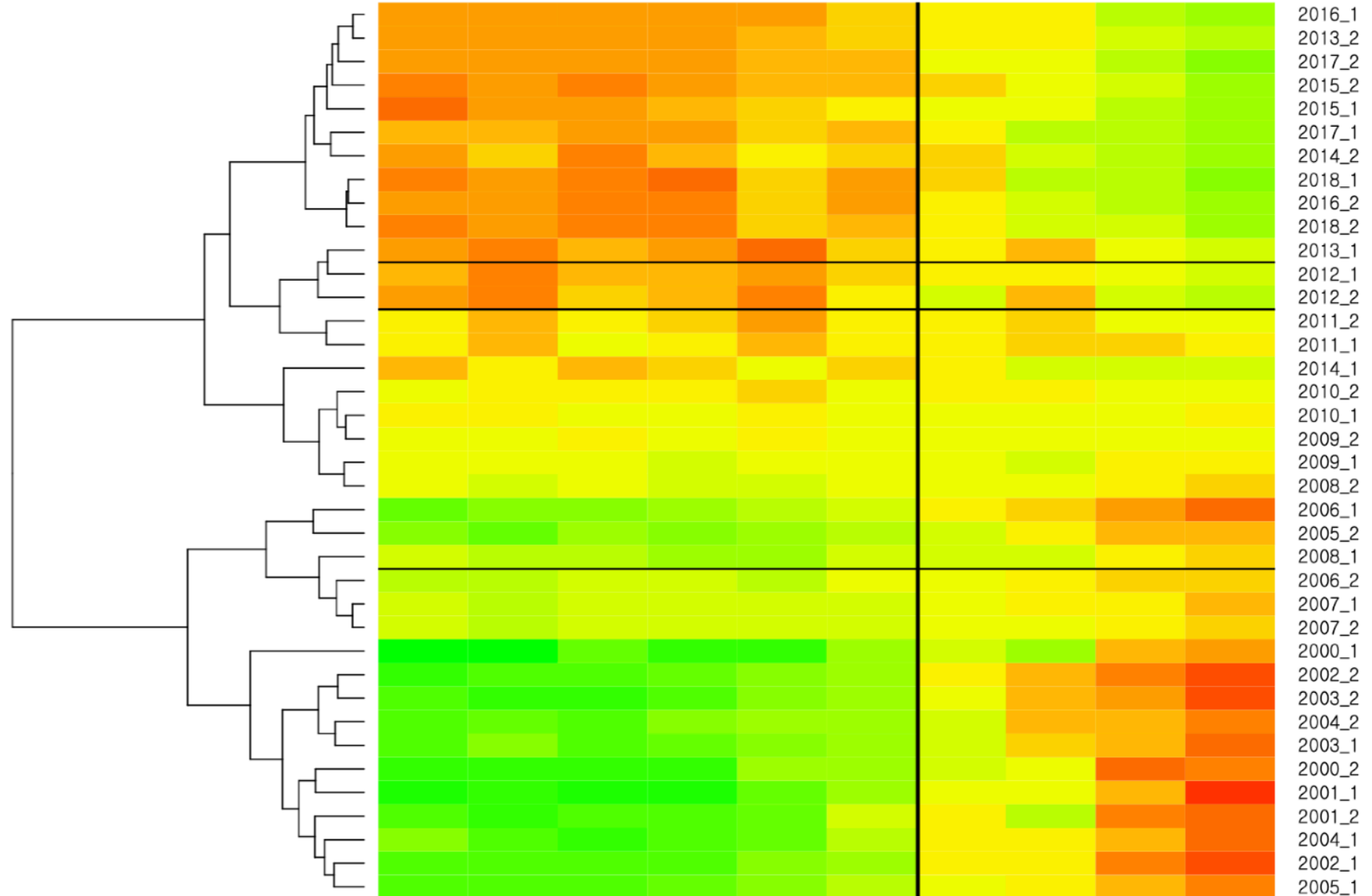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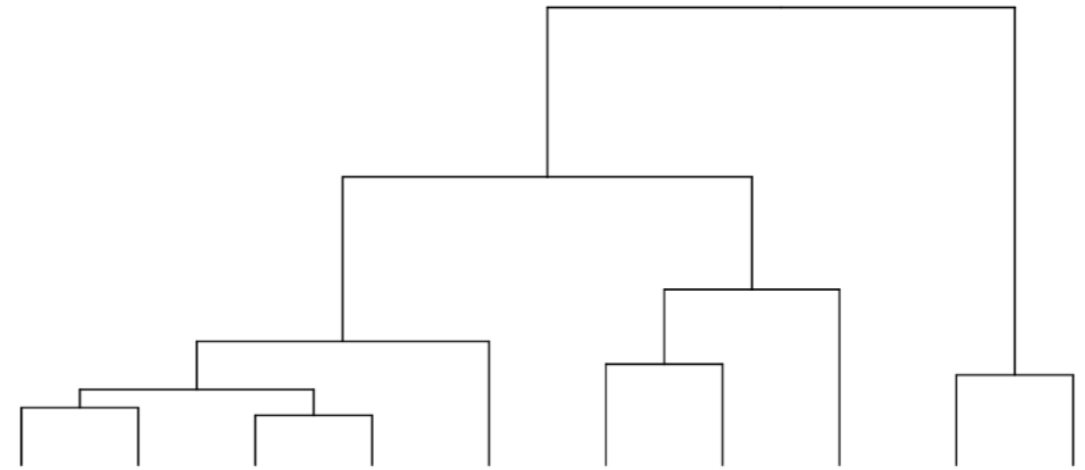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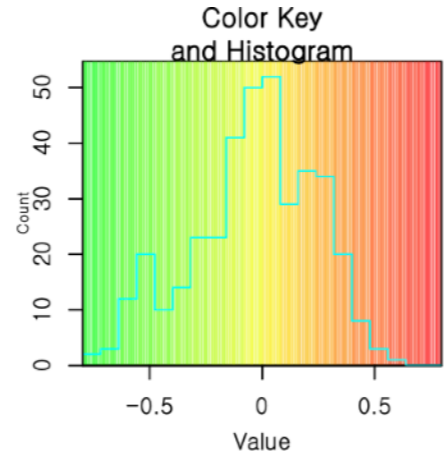
대상의 속성



행위 주체의 속성



분석 결과 차원별 추이



시 민 빈 곤 공 동 연 대 부 지 적 불 일 소
 체 감 자 속 극 쌍 시 극
 함 적 적 함 적 적

- 시기 및 차원별 클러스터링 구조를 관찰한 결과 시기와 속성 사이의 의미있는 연관성이 관찰됨.
- 2009년을 전후하여 시기와 속성의 구획이 관찰됨. 2009년 이전 시점에는 “소극적”, “일시적”, “불쌍함”의 패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됨.
- 2009년 이후 시점에서는 “시민”, “빈곤”, “공동체”, “연대감”, “부자”, “지속적” 속성이 높은 수준으로 관찰됨.

결론

결과 요약 및 해석

- 본 연구는 기부 문화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부 성격을 가로지르는 차원으로서 연민과 박애에 초점을 맞춤. 아울러 양자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으로 다섯개의 속성을 제안 하였음. 제안된 속성을 중심으로 약 20년 간의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개념거리측정 (CMD)를 활용하여 추적하였음.
-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연민의 성격을 지니는 속성으로 설정한 “일시적”, “소극적” 성격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른 변이는 있으나 “불쌍함”에 대한 내용도 2009년 후반부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관찰됨.
- 반면, 박애의 성격을 지니는 “지속적”, “연대감”, “공동체”, “시민”의 속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부에 관한 인식과 관심에서 보다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는 박애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 분석 결과 연민의 속성으로 설정한 “부자”, “빈곤” 또한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기부 행위를 통해 옹호하고자 하는 집단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부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결론

결과 종합

-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인 수준에서 연민에서 박애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기부 주체와 그 대상, 지속성 등에 있어 한정적/임시적 성격에서 점차 보편적/체계적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나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기부 인식으로서 연민의 성격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종합하자면 한국의 기부 문화는 보편적 성격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성격이 부분적으로 보완,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성이 커지는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